

설 명절 소포 특별처리 돌입

전북우정청, 오늘부터 19일간 기간 설정
150만건 처리 예상 비상대책반 설치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임정규)은 설을 맞이하여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9일간을 '설 명절 소포 특별처리기간'으로 정하고 원활한 소포를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올해 설은 코로나19 여파로 전북지역 소포 일일 최대 처리물량은 평소보다 2~3배 많은 18만 여 건에 달하고, 기간 중 총 150만 여 건의 소포를 처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특별처리기간에 비상 대책반을 설치하고 3천 여 직원 및 140명의 보조 인력과 일 평균 1,000여 대의 차량

및 자동이륜차 등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에 임정규 청장은 "코로나19 철저한 방역과 동절기 종사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고객의 소중한 설 선물이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달 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생물 등 부패성이 있는 소포 접수가 제한되니 유의해 주시고 비대면 배달에 대비해 연락가능한 전화 번호를 꼭 기재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최대희 기자

지역사회 재난 예방 공로 인정

전북대병원 윤재철 교수, 행안부 장관 표창



전북대학교 병원(병원장 윤희철)은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윤재철 교수가 재난 의료 책임 영역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공적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전라북도 재난거점 병원으로 지정돼 전북 지역 내 다수사상자 발생 시 재난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내 다수사상자 발생 시 긴급구조 통제단에서 현장 재난의료 전문지원팀(DMA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지역 내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윤재철 교수는 전북대병원 재난의료책임자로서 전북도내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 및 안전망 확보를 통해 전북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타의 모범이 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윤 교수는 "전북대병원은 재난 상황에서 전라북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전라북도 권역 재난대응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전북대병원을 포함한 소방, 전라북도 재난의료 대응 병원간의 교육 훈련을 통해 재난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전라북도 응급의료체계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남원 금동2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복지시설 건립

LH 전북본부, 입주민과 소통



LH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3일 남원시 남원금동2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민 소통간담회를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과 공동으로 남원 금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중 중점사항은 2013년 도시가스 전환공사 완료 후 수년간 미활용 방치되던 단지 내 불용LPG 저장소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공동시설(주민회의공간, 운동시설)과 경비원휴게실 등을 포함해 추진 될 예정이며, 추진일정은 1월 설계착수를 시작으로 당해연도 10월 중 공사 준공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

로 입주민 성향을 고려해 더욱 좋은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 전북본부 주거복지사업처 김중범 처장은 "이번 공사로 입주민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경비원분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서부산림청, 정부혁신 청정(廳聽) 전담팀 모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정현)은 조 직문화 개선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백신접종 독려를 위한 '정부혁신 청정(廳聽) 전담팀(TF) 1차 모임'을 지난 13일에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는 2021년도 청정 전담팀 활동성과 공유 및 2022년도 청정 전담팀 운영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미 크론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직원들의 3차 예방접종을 독려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 직

원이 코로나19 3차 백신접종을 2월말 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권정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작년부터 추진된 자체 정부혁신 청정 전담팀에서 MZ세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방청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부듯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소통문화 정착 및 출근하고 싶은 직장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학교 지역대학육성사업단, 공무원연금공단과 협력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오픈캠퍼스'를 운영하고 지난 14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과정 운영 통한 연기금 분야 인재 양성

국민연금, 오픈캠퍼스 5기 111명 대상 수료식 개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전북대학교 지역대학육성사업단, 공무원연금공단과 협력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오픈캠퍼스'를 운영하고 지난 14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픈캠퍼스'의 목적은 공단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번 '오픈캠퍼스' 5기는 전북지역 5개 대학교(전북대, 원

광대, 군산대, 우석대, 전주대)와 전주대학교 학생 등 총 111명이 수료했다. 공단은 2019~2021년 동안 4회에 걸쳐 '오픈캠퍼스' 산학협력과정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3기부터는 제주대학교, 4기부터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추가로 참여해 공적연금 특화과정으로 확대했다. 이번 5기의 교육과정은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제도 강의, 각 기관의 채용 절차 설명회, 팀별 토론·발표를 통한 참여형 강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5기 수료자에게 국민연금공단 체험형 인턴 모집 시 서류전형 가점을 제공하며, 우수한 토론·발표팀에는 이 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이번 교육 수료자는 재학 중인 각 대학교로부터 2학점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올해로 5기를 맞이한 '오픈캠퍼스'는 공단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학습을 통해 대학생들의 공적연금 이해를 돕고 연기금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이다"라며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역 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스타 품목' 딸기·포도, 수출 역대 최대

합산 수출액 최초 1억불 돌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품목인 딸기와 포도의 수출이 각각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특히 두 품목은 정부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수출 잠재성과 성장세를 고려해 스타 품목으로 육성하고 정책적 지원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수출실적이 각각 64.9백만 불과 38.7백만 불을 기록하는 한편, 두 품목 합산 수출액이 최초로 1억 불을 돌파했다. 농식품부는 딸기·포도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부터 저장, 유통, 마케팅, 바이어 발굴 관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서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딸기의 경우 그동안 적극적인 품종 개발을 통해 국산 품종 보급률이 96.4%로 높아졌는데, 특히 수출용으

로 매향, 금실, 킹스베리 등을 육성해 해외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시장 특성을 고려해 싱가포르에서는 고급호텔의 유명 요리를 통해 디저트 신 메뉴를 출시했고, 베트남·태국에서는 한국에 관심이 높은 점을 활용해 프리미엄 매장 위주로 마케팅을 집중한 것이 프리미엄 이미지와 수요를 확산하는데 주요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 세계적 물류난에 대응해 대한항공과 협업으로 주 수출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싱가포르와 홍콩 노선에 전용 항공기를 운영하는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도의 경우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품질·안전성 기준을 운영해 품질향상을 도모했고, 정부에서는 저장 시설 및 기술을 지원해 기존 12월에 수출이 마감되던 것을 이듬해 3월까지 수출 시기를 연장했다. 해외 고급호텔, 대형백화점 등 최고급 매장을 중심으로 품질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사인머스켓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고급 유통 매장에서는 1송이에 약 12만원 정도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딸기와 포도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현장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을 찾아 지원방안을 모색해 가는 한편, 시장별 소비 특성, 수요처 등 시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국가별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딸기·포도 수출 1억 불 달성은 우수 재배기술 확산과 고품질 농산물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성과로 의미가 크다"라며 "올해도 수출능력이 수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산 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농식품 수출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희 기자

올해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 자금 융자 지원

aT·농식품부, 150억 규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2022년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농산물의 구매 촉진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지역농산물

구매자금을 별도로 책정해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와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시설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납품업체, 로컬푸드직매장 등이다. 지원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연 3%(농업경영체 연 2.5%), 변동금리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에 따른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공사 홈페이지의 기업지원 메뉴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우편과 방문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마감은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다. /최대희 기자

내달 18일까지 농업연구개발 정기 공모

농진청, 농축산업 디지털 전환 등 491여억원 규모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022년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정기 공모를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실시한다. 농진청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식량위기 및 농촌소멸 등 외부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 전략목표로 ▲농축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농생명 자원 소재화 기반 기술 확보

▲농식품 산업 활성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지역 농업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체계 강화 ▲케이(K)-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설정했다. 이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12개 사업 134과제(연구비 491억 4400만 원)를 공모한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국·공립 또는 민간기관 연구자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서류접수 및 신청 과제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 공모 및 지원관리시스템(http://afrca.go.kr)에서 볼 수 있다. 농진청 연구운영과 조영민 과장은 "농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농업의 정밀화, 과학화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농촌, 생산영역만 아닌 생활·복지공간으로"

편동현 농어촌공 무진장지사장 임명

한국농어촌공사 신입 무진장지사장으로 편동현(55)씨가 임명되었다.



편 신입 지사장은 군산 출신으로 군산 제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전북대학교에서 석사과정(토목공학)을 마쳤다. 지난 1991년에 입사한 이래 전북지역본부 조사설계부와 기획관리부, 금강사업단 공무원, 분사 기획사업처 사업장장, 해외사업처 인도네시아 가리안빌 용역단장, 전남 영암지사장을 거쳐 2022년 1월 13일자로 무진장지사장의 중책을 맡았다. 농어촌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편동현 지사장은 "농업·농촌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농정에 맞추어 농업농촌을 단순한 생산영역만 아닌 생활공간과 복지공간으로서 균형발전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1년간 무진장지사를 이끌어 온 김동진 지사장은 분사 해외사업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수=관호 기자

"농어업인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 목표"

이종화 농어촌공 동진지사장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지난 13일 제14대 이종화 동진지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종화 지사장은 "이중화는 농어업인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장은 첫째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며, 둘째 기존 주력사업은 더욱 고도화시켜 나가고 새로운 동력사업을 발굴해 기반을 탄탄히 하고 셋째 신뢰와 배려,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입 이종화 동진지사장은 전북 장수가 고향이며 지난 92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새만금사업단 경영지원부장, 경기지역본부 김포지사 농지연계부장, 동진지사 고객지원부장, 2020년 전주완주임실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지난 13일 동진지사장으로 부임했다. /김재=박노태 기자

식품진흥원, 설맞이 특별 기획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설맞이 특별 기획전을 오는 2월 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식품기업들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기획전은 푸드폴리스마켓 사업에 참여한 27개사의 다양한 식품 선물세트를 온라인 푸드폴리스마켓(http://www.fmarket.or.kr)과 오프라인 전시관매장(식품진흥원 1층)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즉석조리식품, 육수·조미료, 차·음료 선물세트를 최대 4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뉴시스